

《전라북도 방언사전》의 표기에 대한 연구

장 승 익(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음운의 표기 |
| 2. 기본적인 전제 | 4. 음운 현상의 표기 |
| |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방언 표기’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2장에서는 ‘전북 방언’의 범위 및 표기의 원리를 설정하였다. 전북 방언은 ‘193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 지역 전역에서 쓰이는 노년층의 말’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전북》의 표기 원칙은 형태음소적 표기를 기초로 하여, 굴절·합성·파생의 경우 기저형 사이에 경계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음운 규칙의 경우, 표준어와 동일한 경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전북 방언 특유의 음운 현상은 표기에 반영한다. 그리고 복수의 변이형이 공존하는 경우는 표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기의 보수성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음소의 표기에 관한 것으로, /ㄱ/와 /ㄲ/는 구분하여 표기하고(고창 제외), /ㄴ/ 경우에는 표준 발음(허용)으로 실현될 경우 ‘ㄴ’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ㅎ, ㅍ’와 같은 자모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운소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4장에서는 전북 방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음운 현상을 살펴보고 이 현상들이 표기에 반영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다만 ‘ㅎ

-탈락'의 경우에는 표기의 보수성을 고려하여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핵심어 : 《전라북도 방언사전》, 전북 방언, 기술 사전, 방언 표기, 형태음소적 표기, 음운 현상.

1. 서론

이 글은 《전라북도 방언사전》(이하 《전북》¹⁾)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표기의 문제’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는 데 목표를 둔다. 방언 표기에 대한 고민은 방언 연구 및 방언 사전 편찬의 과정에서 함께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²⁾ 이중 방언 사전은 해당 방언의 방언형을

- 1) 《전라북도 방언사전》은 2017~2018년 2년간에 걸쳐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전승과 전라북도 말의 보존 및 학술적 가치를 연구할 자료 구축”을 목표로 편찬하였다. 1차년도에는 올림말 10,000 어휘를 선정하고, 시범 집필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집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고, 2차년도에는 집필 및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2019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청 누리집(www.jeonbuk.go.kr)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종이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 2) 방언의 ‘표기’와 함께 ‘전사’의 개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사(transcription)’는 “제보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음성기호로 기록하는 일”(이상규 2006: 143), 즉 방언을 연구할 때 조사된 자료를 문자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전사를 할 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IPA를 쓰기도 하고, 한글을 쓰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기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정밀한 음성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음성·음운론 연구에서 IPA를 많이 쓰며, 그 외에는 한글 전사를 하는 편이다. 광충구·김수현(2008: 23-33)에서는 ‘음성을 그에 대응하는 문자로 적는 것’을 ‘전사’로, ‘전사된 것을 일정한 원리에 맞추어 적는 것’을 ‘표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표기의 규범적인 면이 약해지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조될 경우 전사와 표기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는 정승철(2008)의 기술에 따라, 이 글에서는 두 개념에 대한 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표기의 일관성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마련이다.³⁾ 이 글 또한 《전북》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방언은 “균질적이던 한 언어가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생겨난 분화체로서, 특정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음성, 음운, 문법, 어휘의 체계”(방언연구회 2001: 119)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 하나는 방언이 ‘특정 집단(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언어 체계’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전북 방언은 국어의 여타 하위 방언들과 대비되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표기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 다른 정보 하나는 방언이 ‘한 언어에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방언은 이를 포함하는 상위 언어의 언어적 특징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결국, 방언을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위 언어의 표기 방식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전북 방언의 표기는 국어의 표기 규정인 <한글맞춤법>에 기초하여야 한다.⁴⁾

어떤 한 방언을 제대로 표기하려면 해당 언어의 전 체계를 낱낱이 파악하고 분석적으로 이해해야 하나(곽충구·김수현 2008),⁵⁾ 이 글에서는 우선, 전

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방언의 표기가 ‘규범’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3) 대표적으로 《제주어 표기법》(1995, 2013)이 있다. 그리고 각 방언 사전 첫머리의 ‘일러두기’에 간략하게나마 표기 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다.
- 4) 그런데 ‘<한글맞춤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은, 방언을 표기할 때 이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글맞춤법>의 표기 대상인 ‘표준어’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언’은 그 성격이 다르다. ‘표준어’는 인위적이고, 성문화된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이상규 2006: 35), 방언은 그렇지 않다. 방언은 “자연스럽고 살아 있는 언어”이며, ‘현장성·직접성·구체성을 가진 언어’(이태영 2011: 32~38)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의 표기는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방언의 표기는 기술과 보존의 측면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 5) <한글맞춤법>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 목록에서부터 음운 현상, 교체 양상, 단어 형성 과정 등 국어의 전반적인 체계가 표기법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 방언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전북 방언의 개념, 방언 표기의 원리)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방언 사전의 표기 방식을 검토하여 전북 방언에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기본적인 전제

<한글맞춤법> 1장 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글맞춤법>의 대상 및 표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전북>> 편찬을 위한 전북 방언 표기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1 표기 대상

표기 대상은 ‘전북 방언’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표기하려는 이 ‘전북 방언’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다.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표준어에 대한 공간, 시간, 사회적 기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표기하려는 ‘전북 방언’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공간적 기준이다. 표준어의 경우,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을 그 기준 지역으로 삼고 있다. 이를 따르자면, 전북 방언은 전북 지역의 중심지인 ‘전주’를 기준으로 하거나, 전북 방언의 핵방언권⁶⁾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주 지역어나 핵방언권의 말이 전북 방언의 기준이 되어야

6) 최전승 외(1992: 80)에 따르면 ‘전주, 완주(동상·비봉·화산·운주 제외), 진안 일부, 임실, 김제’를 전북 방언의 핵방언권으로 삼고 있다.

할 근거를 언어학적으로 찾기는 어렵다.⁷⁾ 결국 ‘전북 방언’은 어느 한 지역어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전라북도 지역 전체에 나타나는 방언들의 총합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이태영(2011: 38~45)에서 주장하는 ‘공통어’와 상통하는 개념이다.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공통어, 이러한 의미에서 ‘전북 방언’은 전라북도 전 지역의 언어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전북》은 어휘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 군 단위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어휘 선정을 주요 사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전라북도 전 지역의 말을 아우르는 전북 방언의 실체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둘째, 전북방언의 시간적 기준은 ‘현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이 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전북》 집필에 참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료는 《한국방언자료집》V(전라북도편, 1987), 《지역어 조사 자료》(2005~2009), 세종 계획의 결과물인 ‘한국 방언 검색 시스템’과 같은 어휘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문학 방언 자료, 구비 문학 자료도 참고하였다. 문학 방언 자료로는 1930년대 김영량, 신석정, 채만식부터 2000년대 윤홍길의 작품에까지 이른다. 구비 문학 자료로는 《한국구비문학대계》5(1980~1987), 《민중 자서전》 등을 참고하였다.⁸⁾

7) 전북 방언의 하위 방언권 구획은 이승재(1987)의 ‘田’자 구획, 소강춘(1989)의 ‘井’자 구획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하위방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정량적 방법론을 통해 서남 방언 전체의 하위 방언권 구획을 시도한 정성훈(2017)도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주, 완주, 익산, 옥구, 김제’는 중부 방언 전이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전북 동부 지역 방언으로 분류되던 ‘순창’은 ‘담양, 곡성, 화순’과 함께 전남 방언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주는 동부 산간 지역인 진안, 장수 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오히려 ‘전주, 완주, 익산, 옥구, 김제’와 가까운 모습을 보여, 중부 방언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 방언의 하위 방언을 구획한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8) 이에 덧붙여, 방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에서 발간된 국어사 자료(《봉계집》, 《영산신록》 등)와 ‘열녀훈향수절가’와 같은 판소리계 소설, 춘향가, 심석가, 토별가, 박타령, 적벽가, 변강쇠가’ 등 판소리 사설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준이다. 이는 목적과 관련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표준어는 규범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말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즉,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큰 틀의 기준이 ‘교양 있는’에 담겨 있다.⁹⁾ 《전북》의 경우에는 규범화나 가치 판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교양 있는 사람’과 같은 기준은 불필요하다. ‘전북 방언’의 사회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의 편찬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 (1) ㄱ. (생략)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방언 혹은 사투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지역의 언어문화 유산인 방언이 사라져 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ㄴ. 국어사전은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공하는 규범 사전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방언사전은 대상이 되는 방언의 실제 모습을 충실하게 남기는 기술 사전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 ‘전라북도 방언 사전 집필 및 편찬 결과 보고서(2018)’ 중에서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북》은 사라져 가는 전북 방언의 보존과 기술에 목적이 있다. ‘사라져 가는’ 것은 방언 화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이를 사회적 기준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면 노년층의 말이 여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방언학에서 자료 제공인을 선정하는 기준과도 부합한다.¹⁰⁾ 그리고 이 사전을 집필하기 위해 주로 참고한 ‘말뭉치 자료’

《전북》 집필에 기초 자료로 사용한 말뭉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방언 사전 집필 및 편찬 결과 보고서’(2018), 또는 이태영(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교양 있는’에 대해 국립국어원(2018: 149~150)에서 해설한 다음의 내용은 표준어가 말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재하고 있으며,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은연 중에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양이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를 뜻하므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사회적 품위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중략) 그러나 비어, 속어, 은어 등은 표준어이기는 하되 언어 예절에 어긋난 말들이므로,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말들이다.*”

- 10) 전통 방언학에서 자료 제공인은 ‘NORMs’, 즉 한 곳에 정착한(Nonmobile), 나이 많은(Older), 시골 출신의(Rural) 남자(Males)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이상

가 바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전북》 편찬에 있어서 ‘전북 방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2) 가. 공간적 기준: 전라북도 전역에서 쓰이는 말의 총합
- 나. 시간적 기준: 현대(1930~현재)
- 다. 사회적 기준: 노년층

2.2 표기 원리

방언을 한글로 표기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소적 표기’와 ‘형태음소적 표기’ 두 가지이다. 대부분의 사전 및 연구에서 ‘형태음소적 표기’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¹¹⁾ 이는 <한글맞춤법>의 기본 원리가 ‘형태음소적 표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는 ‘형태를 밝혀 적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 절에서는 방언 표기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을 들고 있는 고평모(1998)와 정승철(2008)을 검토하여 전북 방언의 표기 원리를 설정한다.

(3) 방언 표기의 원리Ⅱ(고평모 1998)

- 가. 형태 표기를 할 경우에는 표기로부터 발음을 (표준어) 규칙에 의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해당 방언의 특유의 규칙은 그 적용 결과를 직접 반영하여 표기가 방언형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규 2006: 135).

11) 음소 표기는 표기와 발음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여 해당 방언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어 조사 자료》의 구술 발화 부분은 음소적 표기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음소 표기는 독서의 능률을 현저하게 저해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형태음소 표기는 동일한 의미의 형태소를 하나의 표기로 고정함으로써 독서의 능률을 높이고 해당 방언을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㉔. 어형이 원형으로부터 멀어졌거나 의미가 본래의 것으로부터 멀어진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는다.
- ㉕. 하위 지역어들에 따라 다른 어형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㉖. 표기의 결정을 위한 모든 사항의 검토는 해당 방언의 체계 안에서, 또는 각 하위 지역어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㉗. 관련된 말들은 언제나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ㄱ,ㄴ)은 표기가 발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때 ‘예측’하는 기준은 ‘규칙’이다. 그런데 고광모(1998)에서는 표준어에 있는 규칙(3ㄱ)과 방언 특유의 규칙(3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표준어 규칙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¹²⁾ 방언 특유의 규칙은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재피다]의 적절한 표기에 대해 ‘쩍히다’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잡히다’로 표기하고 이-역행 동화와 유기음화가 적용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이-역행 동화’의 경우 표준어에 없는 특유의 규칙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방언의 ‘규칙’을 가르칠 것인가 ‘표기’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방언 사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언 문법 규칙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문법 규칙의 적용형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³⁾

(3ㄷ)은 형태나 의미가 원형에서 많이 벗어났을 때는 소리대로 적어야 함을, (3ㄹ~ㅂ)은 이러한 표기가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石油’의 변이형인 [세규], [세구], [시구]의 표기 문제가 나온다. 이 논문의 필자는 [세규]의 경우 ‘쩍히다’와 마찬가지로

12) 여기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으로는 “평파열음화, 비음 동화, ‘ㄱ’의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후음 탈락, y-탈락, ㄴ-첨가, 반모음 첨가(일부), 유기음화” 등이 있다. 음운 현상의 명칭은 이진호(2007)을 따랐다.

13)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일부), 위치동화, 원순모음화, 이-역행동화, ㄷ-탈락, 반모음 첨가(일부), 이중 모음의 축약”과 같은 음운 현상은 <한글맞춤법>에서는 비표준 형태로 판단하여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특정 방언 표기에 있어서는 ‘특유의 규칙’일 수 있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색유’로 적을 수 있지만 [세구], [시구]는 원형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세구, 시구’로 적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국 체계 안에서의 일관성을 위해 [세규]도 ‘세규’로 연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단어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일면 타당하나, 이렇게 될 경우 ‘잰히다’와 ‘세규’의 표기에는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정승철(2008)에서 제시한 ‘방언 표기의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4) 방언 표기의 원리Ⅱ(정승철 2008)

- ㄱ. 공시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형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ㄴ. 둘 이상의 공시적 요소로 분석되는 형태소는 각각의 기본형을 그 사이에 경계를 두어 적는다.
- ㄷ. 규칙적 교체를 보이지 않는 형태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ㄹ. 둘 이상의 공시적 요소로 분석되는 형태이더라도 음절이 줄어들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ㅁ. 변화가 진행 중인 형태는 변화 이전의 형태를 적는다.
- ㅂ. 음절 중성의 ‘ㅅ’에 한해서는 <한글맞춤법>을 따른다.

(4ㄱ, ㄴ)은 ‘형태음소 표기’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공시적 분석 가능 여부’로 소리대로 적을지, 경계를 두어 적을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시적 현상’은 연구자에 따라 달리 설정되며, 이러한 문제는 정승철(2008)에서도 잠깐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가령 파생이나 합성을 통시적인 결과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 파생어 합성어는 (4ㄱ)에 해당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4ㄷ)은 불규칙 교체를 보이는 단어의 기저형을 복수로 설정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¹⁴⁾

(4ㄹ)은 ‘축약, 탈락’에 대한 것인데, 형태음소 표기보다 ‘현실 발음’이 우선하는 음운 현상에 대한 것이다. <한글맞춤법>에서 현실 발음이 우선하는

14) (4ㄱ~ㄷ)은 교체의 기준을 ‘규칙-불규칙’이 아니라 ‘자동적-비자동적 교체’로 설정하면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다.

음운 현상으로는 “반모음화, 모음조화,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일부), 유음 탈락, 동일 모음 탈락, 으-탈락” 등이 있다.

(4口,ㅂ)은 표기의 보수성에 대한 내용이다. 방언 표기에서도 표기의 전통이나 보수적인 성격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4口)는 변이형의 공준과 관련된 내용인데, 방언의 변이형에 대해 이전 형태(보수형)와 최근 형태(개신형)의 구분이 매끄러울지 의문스럽다. 물론 정승철(2008)에서는 이전 형태를 상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을 이전 형태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전북 방언에서 ‘主意’에 대하여 [주으]와 [주이]가 변이형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 ‘주으, 주이, 주의’ 중 무엇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복수의 변이형이 나타날 경우, 변이형들 모두를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방언의 실제 모습을 충실하게 담는다’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북》의 표기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5) 《전북》의 표기 원리

- ㄱ. 굴절, 합성, 파생형의 경우 각각의 기저형 사이에 경계를 두어 표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ㄴ. 표준어와 동일한 음운 규칙의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방언 특유의 음운 현상은 표기에 반영한다.
- ㄷ. 복수의 변이형이 언어, 지리, 사회적으로 공존할 경우 이를 표기에 반영한다.
- ㄹ. 보수적 표기의 문제는 따로 정하여 둔다.

3. 음운의 표기

이 장에서는 《제주어 표기법》(2013, 이하 《제주》)을 비롯하여, 《전남

방언 사전》(1997, 이하 《전남》), 《경북 방언 사전》(2000, 이하 《경북》), 《경남 방언 사전》(2017, 이하 《경남》), 《경주 속담·말 사전》(2002, 이하 《경주》), 《강릉방언사전》(2009, 이하 《강릉》)의 일러두기에 제시된 음운 표기 지침에 대해 검토하고, 전북 방언의 표기 지침도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 자료에 제시된 음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확인하겠다.

- (6) ㄱ. 표준어에는 있으나 해당 방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소
 - ㄴ. 표준어에는 없고 해당 방언에만 존재하는 음소
 - ㄷ. 해당 방언에 존재하는 음소

3.1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

먼저, 표준어에는 있으나 해당 방언의 음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의 표기에 대한 문제이다. 《전남》은 /꺄/와 /꺈/의 표기에 대해,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두 음소가 변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꺄’로 표기하기로 하였으며, 변별되는 일부 지역에서만 ‘꺈, 꺄’를 구분하여 적는 방식을 취하였다.¹⁵⁾ 《경북》, 《경주》, 《경남》의 경우에는 /꺄/와 /꺈/, /ㅡ/와 /ㅣ/가 이 방언에서 변별되지는 않지만, 표준어에 준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중모음과 관련해서는 앞의 두 사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경남》에만 ‘꺄, 꺄, ㅡ’는 실제 발음에 따라 적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사전은 《전남》과 달리, 단순모음은 표준어에 준해서¹⁶⁾, 이중모음은 현실 발음에 따라 표기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제주방언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꺄, ㅡ’는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쓰도록 규정하였다. 대체로

15) 그런데 ‘꺄’의 경우에는, 단순모음과 이중모음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방언에서 [∅]와 [we]가 같이 나타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이에 대해 《경주》(2002: 4, 249)에서는 ‘이해를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실 발음을 따르되 한자어에서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7)

| 구분 | 내용 | |
|------------------|---------|--------------------------------------|
| 《전남》 | ㄱ, ㅋ | - ‘ㄱ’로 표기 - 변별되는 지역에서만 ‘ㄱ, ㅋ’로 표기 |
| | ㄴ | - 단순 모음, 이중 모음 모두 나타냄. |
| 《경북》《경남》 《경주》 | ㄱ, ㅋ | - 표준어에 준하여 표기 |
| | ㄴ, ㄷ | - 표준어에 준하여 표기 |
| 《경남》 | ㄱ, ㄴ, ㄷ | - 실제 발음대로 표기 |
| 《제주》 | ㄴ, ㄷ | -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사용 |

전북 방언의 단순 모음이 10개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¹⁷⁾ 다만, 고창만은 /ㄱ/와 /ㅋ/가 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방언연구회 2001: 196). 따라서 전북 방언을 표기할 때, ‘ㄱ’과 ‘ㅋ’는 구별하여 적되, 고창 지역어의 경우에만 ‘ㄱ’로 적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¹⁸⁾ /ㄴ/, /ㄷ/ 또한 노년층 발화에서는 단순 모음으로 실현되는 바, 이 또한 ‘ㄴ, ㄷ’로 각각 적으면 된다.

그런데 전북 방언의 이중모음 목록에는 /ㄴ/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발음법>에 명시된 ‘ㄴ’의 발음과 그에 대응하는 전북 방언의 발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가장 최근 연구로는 임실 방언의 노년층, 청년층 모음을 연구한 심재홍(2018)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북 방언의 모음 목록은 심재홍(2018: 34)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임실 지역의 노년층 화자는 /ㄱ/와 /ㅋ/를 변별하고, /ㄴ/와 /ㄷ/도 단순 모음으로 발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 ‘ㅋ’가 아닌 ‘ㄱ’로 적는 이유는, 고창 방언에서 /ㄱ/와 /ㅋ/의 합류가 전남방언의 영향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갑(1986: 21)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구례, 광양, 고흥, 보성 등)은 10모음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서부 지역은 /ㄱ/, /ㅋ/가 합류된 9모음 지역이다. 고창은 전남 서부 지역과 인접하여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 (8) | 환경 | 발 음 | | 전북 방언 표기(안) |
|-----|--------|----------|----------|----------------------|
| | | 표준 | 전북 | |
| ㄱ. | 1음절 | [ㄱ] | [ㄱ] | [ㄱ] → ‘ㄱ’ |
| ㄴ. | 2음절 이하 | [ㄱ], [ㄴ] | [ㄱ], [ㄴ] | [ㄱ] → ‘ㄱ’, [ㄴ] → ‘ㄴ’ |
| ㄷ. | 자음+ㄴ | [ㄴ] | [ㄴ], [ㄱ] | [ㄱ] → ‘ㄱ’, [ㄴ] → ‘ㄴ’ |
| ㄹ. | 관형격 조사 | [ㄱ], [ㄴ] | [ㄴ], [ㄱ] | [ㄱ] → ‘ㄱ’, [ㄴ] → ‘ㄴ’ |

(8ㄱ)은 전북 방언에서 [ㄱ]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으며, ‘ㄱ’의 표기에서 [ㄱ]를 예측할 수도 없으므로, 현실 발음에 따라 ‘ㄱ’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8ㄴ,ㄷ)에서도 [ㄱ]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ㄱ’로 표기하고, 다만 [ㄴ]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표준(허용) 발음과 동일하므로 ‘ㄱ’로 표기한다. 이러한 원리는 (8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ㄱ]로 발음되면 ‘ㄱ’로, [ㄴ]로 발음되면 ‘ㄱ’로 적는 것이다.

3.2 방언에만 존재하는 음소

다음으로는 표준어에서는 음소로 인정하지 않으나 해당 방언에서는 존재하는 음소의 표기를 살펴보겠다. 일부 방언 사전은 <한글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모로 표기할 수 없는 음소를 위해 별도의 자모를 추가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주>의 ‘;’, ‘.’를 꼽을 수 있으며, 제주방언에 남아 있는 /ɔ/, /jɔ/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 <경남>에는 [실꼬], [실찌](載)와 같은 활용형에서 경음화를 일으키는 음소를 표기하기 위해 ‘ㅎ’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강릉>에서는 ‘ㅎ’이 외에도 ‘ㅍ’[jɔ], ‘=’[ji] 등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9)

| 구분 | 내용 | |
|--------------|------|-------------------------|
| <제주> | ;, . | - /ɔ/, /jɔ/ |
| <전남><경남><강릉> | ㅎ | - 표준어와 다른 경음화 실현형 표기 목적 |
| <강릉> | ㅍ, = | - [jɔ], [ji] |

(9) 중에서 전북 방언에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은 ‘ㅎ, ㅍ, ≡’ 세 가지이다. 최명옥·김옥화(2001)에 따르면, [ㅎ]은 표준어 ‘닿-, 쫓-, 신-, 견-’과 어미 ‘-고, -지, -어서’와 결합할 때 실현된다([닥꼬/꾸, 단찌, 다아서]). [ㅍ]는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이’에서 이-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로 [웁이]와 같이 실현된다. 그리고 [≡]는 [ㄷ]가 고모음화한 것으로, 음소라기보다는 일부 단어에서, 변이음으로 실현된다. 이들 자모는 국어 연구자가 아니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데다가, 실현되는 단어도 일부이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ㅎ’의 경우는 전북 방언의 음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ㅍ’는 다음 장에서 기술할 ‘특정적인 음운 현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 또한 방언의 기술과 보존이라는 점에서는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으나, 음소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점을 감안하여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3 운소

마지막으로는 운소에 대한 표기 방식이다. 《전남》은 표제어 해당 음절 오른쪽에 ‘:’을 붙여 장음을 표시하였고, 《경북》은 성조(ˊ)와 장음(^)을 표시하였다. 《경남》은 표제어에 성조를 표시하지 않고 표제어 옆에 별도의 성조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모음을 중복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하였다.¹⁹⁾ 《강릉》은 성조와 장음을 각각 ‘, :’로 표기하였다.

이기문 외(1990)에 따르면 전북 방언에서 음장을 변별하는 지역은 ‘옥구, 익산, 진안, 고창’뿐이며, 나머지 지역(‘완주, 무주, 김제, 부안, 정읍, 장수, 순창, 남원, 임실’)은 음장을 변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위의 음장 변별, 비변별 지역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될 수

19) 성조와 장음 표기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기이서[--] 기어서.→활용형의 하나.

없다. 이 연구에서 음장이 변별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김제가, 다른 자료 제공인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음장을 잘 변별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동일한 자료 제공인이 서로 다른 두 연구에서 음장 변별력의 차이를 보여준 사례도 있었다.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전주 지역어 화자들의 음장 변별 여부를 확인했던 장승익(2010)에서도 음장을 변별하는 자료제공인은 30%에 불과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음장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쪽을 택하고자 한다.²⁰⁾

4. 음운 현상의 표기

이제 우리는 해당 방언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을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남방언에는 ‘폐음절 어근+하다’에서 /ㅎ/이 약화되어 유기 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데([깨까더다] ‘깨끗하다’), 《전남》에서는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²¹⁾ 동남 방언권 사전에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비모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²²⁾ 그리고 《제주》에는 제주 방언의 특징적 음운 현상인 ‘복사현상’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²³⁾ 전북 방

20) 복수의 심사 위원께서 (5ㄷ)의 원칙에 따라 음장의 표기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필자도 동감한다. 다만 음장의 변별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정교하고 면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북 방언의 음장 변별에 대한 지리적, 세대적 분포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장을 표기에 반영하는 문제는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21) 이 방언에서 /ㅎ/ 약화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일이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22) 그 방식은 차이가 있다. 《경북》에서는 ‘ㅇ’을 활용하였고(호맹이), 《경남》은 ‘~’를 사용하여 비모음을 표현하였다(다라~이). 그리고 《경주》는 조금 특이한데, ‘모음’과 ‘ㅣ’ 사이에서는 ‘ㄴ’을 넣어 비모음을 표기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ㅇ’을 받침으로 넣어 비모음을 나타냈다. 이때 ‘ㄴ’과 ‘ㅇ’은 비모음 표지일 뿐 실제로 발음되지는 않는다. 예: 애니다[애~이~다], 모~양이다[모~야~이~다].

23) 《제주》 제15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

언에도 특징적인 음운 현상이 많은데, 공식적인 것만 몇 가지 추려 제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4.1 어간의 변동과 관련 있는 음운 현상

전북 방언에서 어간의 변동과 관련 있는 음운 현상으로는 ‘이-역행동화, 유음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이-역행 동화는 전북 방언 중 가장 특징적인 음운 현상 중 하나로, ‘N+이(다)’와 같은 곡용 환경은 물론, 피·사동 접사와의 결합, 형태소 내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소강춘 1989: 153~189). 이는 (5L)의 기준에 따라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10) | 환경 | 발음 | 표준어 | 전북 방언 표기(안) |
|------|--------|----------|-------|-------------|
| ㄱ. | 곡용 | [pebi] | 밥+이 | 뱌이 |
| ㄴ. | 피·사동 | [megida] | 먹+이+다 | 뻬이다 |
| ㄷ. | 형태소 내부 | [thök'ɨ] | 토끼 | 퇴끼 |

다음으로 유음 탈락은 /ㄹ/이 /ㄴ, ㅅ/등과 같은 [+설정성] 계열의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이진호 2007: 198). 전북 방언에서도 어미 두음이 /ㄴ, ㅅ/일 때 /ㄹ/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백은아 2016: 133~146). 그러나 이는 표준어에서처럼 필수적이지는 못하여서 유음탈락 실현형과 유음탈락의 미실현형이 변이형으로 공존한다.²⁴⁾ (5L)에 따라 실현형과 미실현을 모두 표기에 반영한다.

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안[內]: 안네, 안네도, 안네만

질[路]: 질레, 질레도, 질레만

바깳[外]: 바깳디, 바깳디도, 바깳디만

24) 전북 방언의 유음 탈락이 /ㄴ/ 앞에서는 필수적이고, /ㅅ/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으 게 어미 앞에서는 수의적이라는 견해도 있다(최명옥·김옥화 2001)

| | | | |
|------|---------------|-------|-------------|
| (11) | 발음 | 표준어 | 전북 방언 표기(안) |
| | [san]~[sarin] | 살--+ㄴ | 산, 사른 |

4.2 ‘-어X’ 계 어미와 관련 있는 음운 현상

‘-어X’ 계 어미와 관련 있는 음운 현상으로는 ‘모음조화, 이중 모음의 축약, 어미 두음 으-탈락’ 등이 있다. 먼저, 모음조화는 어간말 모음의 음운론적 성질에 따라 어미 ‘-어X~아X’가 선택되는 음운 현상이다. 전북 방언은 어미 ‘-아X’를 선택하게 하는 양성 모음의 목록이 표준어의 그것과 다르며, 전북방언 내에서도 지역적인 변이를 보인다. 표준어의 양성 모음은 /ㅜ, ㅛ/이다. 그런데 전북 서부 평야 지역은 /ㅜ, ㅛ/가 양성 모음으로 기능하며, 동부 산간 지역은 /ㅏ, ㅑ, ㅓ, ㅕ/가 양성모음으로 나타난다(소강춘 1989: 31~54). (5ㄷ)에 따라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 | | | |
|------|----|------------|-------|-------------|
| (12) | 지역 | 발음 | 표준어 | 전북 방언 표기(안) |
| ㄱ. | 서부 | [pethatʰa] | 빨+엇+다 | 빨엇다 |
| ㄴ. | 동부 | [pethatʰa] | | 빨았다 |

다음으로, ‘이중모음의 축약’과 ‘어미 두음 으-탈락’은 같은 성질의 현상으로 묶을 수 있다. 어간말 모음이 /ㅣ/인 개음절 어간과 ‘-어X’ 계 어미가 결합할 때 ‘뎡기--+어서→뎡겨서→뎡게서’와 같이 반모음화 후 축약이 일어나는 것이 ‘이중모음의 축약’이다. 이 현상은 표준어에서는 비표준 발음으로 표기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전북 방언 표기에는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어X’ 계 어미가 ‘-으X’로 재구조화된 후 말 모음이 /ㅣ/인 개음절 어간과 결합하는 것이 어미 두음 으-탈락인데(뎡기--+어서→뎡기서; 김옥화 2000), 이에 대해서 장승익(2008)에서는 ‘축약’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어느 쪽으로 설명하거나 상관없이 이 두 현상은 (5ㄴ)에 따라 표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 | | | | |
|------|----|-----------|-------|-------------|
| (13) | 구분 | 발음 | 표준어 | 전북 방언 표기(안) |
| ㄱ. | 축약 | [tɛngesə] | 다니+어서 | 맹게서 |
| ㄴ. | 탈락 | [tɛngisə] | | 맹기서 |

4.3 ‘-으X’ 계 어미와 관련 있는 음운 현상

전북 방언에서 ‘-으X’ 계 어미와 관련 있는 음운 현상으로는 ‘전설고모음화, 원순모음화’를 생각할 수 있다. ‘전설고모음화’와 ‘원순모음화’는 어간 자음에 의해 후행하는 어미 두음 /-/가 각각 /|/나 /ɾ/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전북 방언에서 전설고모음화는 /s, ʃ, ʒ, ʒ, ʃ/을 동화주로 할 때는 물론, /ɕ, ɛ, ɸ, ɾ/이 동화주일 때도 활발하게 일어난다(홍은영 2012). 원순모음화 또한 동화주가 양순음일 때 어미 두음을 원순모음으로 바꾸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 예는 (5L)에 따라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으X 계 어미는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최소 4가지의 변이형을 가지게 된다(-으X ~ -이X ~ -우X ~ -X).

| | | | | |
|------|---------|----------|-------|-------------|
| (13) | 어간말 음절 | 발음 | 표준어 | 전북 방언 표기(안) |
| ㄱ. | 개음절 | kange | 가+니까 | 강게 |
| ㄴ. | 폐음절(전설) | məŋiŋge | 먹+으니까 | 먹웅게 |
| ㄷ. | 폐음절(원순) | sumuŋge | 숨+으니까 | 숨웅게 |
| ㄹ. | 폐음절(기타) | chaɕiŋge | 찾+으니까 | 찾잉게 |

4.4 기타: ㅎ-탈락

전북 방언의 ‘ㅎ-탈락’은, 표준어에서 역행적 유기음화가 일어날 환경임에도 유기음화 대신 /ㅎ/이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곡용의 환경에서는 /ㄱ, ㄷ, ㅂ/으로 끝나는 명사와 조사 ‘하고, 한질라’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일이 빈번하다(웃+하고→[오다고], 최명옥·김옥화 2001). 그리고 파생 접사 ‘-하-’와의 결합에서도 /ㅎ/은 탈락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현상은 전남

방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전남》에서는 이 현상의 규칙성을 감안하여 표기에 ‘ㅎ’을 그대로 두었다. 짐작건대, 국어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하-’를 표기에서 ‘아’로 쓴다는 것이 주는 생경함에 ‘ㅎ’을 표기에 남겨둔 것은 아닌가 싶다.²⁵⁾

이 글도 전북 방언에 나타나는 ‘ㅎ-탈락’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이 현상이 전북 방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음운 현상임을 생각할 때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표기의 보수성’ 측면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ㅎ’이 탈락한 것을 표기에 반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도 예상된다. 가령, ‘-하-’의 여러 변이형 ‘하~허~히~흐’등을 ‘아~어~이~으’로 표기하게 되면 다른 문법 형태소와 혼동이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여]는 ‘건강혀(건강해)’일 수도 있고, ‘건강여(건강이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어다]는 ‘건강허다(건강하다)’와 ‘건강어다(건강에다)’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북 방언의 ㅎ-탈락은 (5ㄷ)에 따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5. 결론

지금까지 《전북》을 편찬하는 데 방언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우리가 표기하고자 하는 ‘전북 방언’의 범위 및 표기의 원리를 설정하였다. 전북 방언은, 공간적으로는 전라북도 지역 전역에서 쓰이는 말의 총합을 의미하며, 시간적으로는 1930년부터 현재 까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전북》의 편찬 목적이 전북 방언을 잘 기술하고 보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년층의 말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울러 《전북》의 표기 원칙은 형태음소적

25) 물론 ‘ㅎ’을 표기에 남겨둘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유기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중 ‘ㅎ’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표기를 기초로 하여, 굴절·합성·파생의 경우 기저형 사이에 경계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음운 규칙의 경우, 표준어와 동일한 경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전북 방언 특유의 음운 현상은 표기에 반영한다. 그리고 복수의 변이형이 공존하는 경우는 표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기의 보수성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음소의 표기에 관한 것으로, 기존 방언 사전의 표기 방식을 기초로 하여 전북 방언의 음소를 표기하는 기준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ㄱ/와 /ㄲ/는 구분하여 표기하고(고창 제외), /ㄴ/ 경우에는 표준 발음(허용)으로 실현될 경우 ‘ㄴ’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북 방언을 표기하는 데 ‘ㅎ, ㅍ’와 같은 자모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운소는 이 방언에서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4장에서는 전북 방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음운 현상을 살펴보고 이 현상들이 표기에 반영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다만 ‘ㅎ-탈락’의 경우에는 표기의 보수성을 감안하여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 글은 전북 방언의 표기에 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국에는 “전북 방언 표기법”과 같은 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생이나 합성, 준말 등의 표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경남방언연구보존회(2017), 『경남방언사전』, 경상남도.
- 고광모, (1998), 「방언 사전의 표기법」, 『목포어문학』 1, 1-11면.
- 고재환 · 송상조 · 김지홍 · 고동호 · 오창명 · 문순덕 · 오승훈(2013) 「제주어 표기법」, 제주특별자치도.
- 곽충구 · 김수현(2008), 『중앙 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카자흐스탄 알마티』, 파주: 태학사.
- 국립국어원(2005-2009), 『지역어 조사 자료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8),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해설』, 국립국어원.
- 김옥화(2000), 「전북 방언 ‘-어X’계 어미의 재구조화」, 『국어학』 36, 97-131면.
- 김주석 · 최명옥(2002), 『(경주)속담 · 말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박성중 · 전혜숙(2009), 『강릉방언사전』, 파주: 태학사.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사전』, 서울: 태학사.
- 백은아(2016), 「전북 방언의 형태음운 현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소장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심재홍(2018), 「전북 입실방언의 모음체계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서울: 탑출판사.
- 이기갑 · 고광모 · 기세관 · 정제문 · 송하진(1997), 『전남방언사전』, 서울: 태학사.
- 이기문 · 김완진 · 최명옥 · 곽충구 · 이승재 · 김영배(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논문집』 30(인문·사회과학편). 45-144면.
-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서울: 태학사.
- 이상규(2006), 『국어방언학』, 서울: 학연사.
- 이승재(1987), 「전북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 8, 80-88면.
- 이진호(2007), 『국어 음운론 강의』, 서울: 삼경문화사.
- 이태영(2011), 『전라북도 방언 연구』, 서울: 역락.
- 이태영(2016), 「국어사전과 방언의 정보화」, 『국어문학』 61, 51-75면.

- 이태영(2018), 「디지털 시대의 사전 편찬의 방향」, 『국어문학』 69, 41-67면.
- 장승익(2008), 「김제방언의 모음 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장승익(2010), 「전주지역어의 음장 변별에 대한 연구」. 『방언학』 12, 93-109면.
- 정성훈(2017), 「서남방언의 하위방언구획과 네트워크 분석」, 『언어학』 77, 157-180면.
- 정승철(2008), 「방언 표기법의 이상과 현실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15, 33-51면.
- 최명옥 · 김옥화(2001), 「전북 방언 연구」, 『어문학』 73, 203-224면.
- 최전승 · 김홍수 · 김창섭 · 김중진 · 이태영(1992), 「전북 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어학』 1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0-1987), 『한국구비문학대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 『한국방언자료집(전라북도편)』.
- 홍은영(2012), 「한국어 전설고모음화 현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Abstracts】

A study on the orthography of the Jeollabuk-do Dialect Dictionary

Jang, Seungick

This paper is the result of contemplating the problem of “the orthography of dialects” which arose in the compilation of the “Jeollabuk-do Dialect Dictionary”. In Chapter 2, we set up the scope and orthography principles of the “Jeollabuk-do (Jeonbuk) dialect”. The Jeonbuk dialect was defined as ‘the words of elderly people used throughout Jeollabuk-do’ from 1930 to the present. Additionally, the orthography of the “Jeonbuk dialect” is based on the morphophonemics orthography,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underlying forms in the case of refraction, synthesis, and derivation. In the case of phonological rules, if one word is the same as the standard form of the word, the standard form is used. On the other hand, if the word is not the same, the characteristic phonological phenomenon of the Jeonbuk dialect is reflected in the word’s orthography. And in the case where plural variations coexist,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orthography. Finally, the conservativeness of the orthography is also mentioned.

Chapter 3 is about phonemic orthography. A phoneme is distinguished as /ㅍ/[e] or /ㅍ/[ɛ] (except Gochang county), and if /-ㅍ/[ij] is pronounced with standard pronunciation (acceptable), it is written as -ㅍ. If not, the pronunciation is indicated as it sounds. Additionally the necessity for words like, ‘ㅍ[ʔ], ㅍ[jø]’ is also expressed. However, prosodemes are not reflected in the orthography. In Chapter 4, we examine some phonological

phenomena that are characteristic of the “Jeonbuk dialectic” and mention that these phenomena should be reflected in the orthography. However, in the case of ‘h-deletion’, these phenomena are not reflected in the orthography due to the conservativeness of the orthography.

Key Words : Jeollabuk-do Dialect Dictionary, Jeonbuk Dialect, descriptive dictionary, dialect orthography, morphophonemics orthography, Phonological phenomena.

이 논문은 2019년 06월 2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